

초등학교 1-2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과 종단적 변화: 잠재전이모형 분석*

권 소 영¹⁾

이 재 림²⁾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생활과학연구소

이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 교육참여의 차원(Epstein et al., 2002)을 토대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을 구분하고,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 양상과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 자료 중 1학년과 2학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어머니 380명이다. 1, 2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 양상과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은 1학년 시기에는 ‘학교참여 소극형’(27.3%), ‘중간 이상 참여형’(60.6%), ‘자원봉사 적극형’(12.1%)으로, 2학년 시기에는 ‘중간 이하 참여형’(92.7%)과 ‘학교참여 적극형’(7.3%)으로 구분되었다. 유형의 전이 양상을 살펴보면, 1학년 시기 ‘학교참여 소극형’의 100%, ‘중간 이상 참여형’의 89.1%, ‘자원봉사 적극형’의 92.2%가 2학년 시기에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되었다. 1, 2학년 시기 교육참여 유형 구분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어머니의 근로시간이었다. 이 연구는 1학년 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교육참여 유형이 나타나는 데 반해, 2학년이 되면 적극적으로 학교참여를 하는 일부의 어머니를 제외한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학부모 교육참여, 교육참여의 차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전이, 잠재전이모형

* 본 논문은 2019년 학부모교육참여패널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로부터 논문 게재료를 지원받았음.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jrlee@snu.ac.kr)

I. 서론

학부모 교육참여는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인이며, 학생인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토대이다(Epstein, 1987). 최근에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학부모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 교육참여만큼이나 ‘지속적’ 교육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부모 교육참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육기본법 13조항에 의하면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교육의 주체이자 동반자’(진미정, 이강이, 이현아, 서현석, 최인숙, 2014)이다. 과거에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치맛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모가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3대 주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강조되고 있다(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2).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학부모 교육참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교육부는 학부모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정책팀을 설치하였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

모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현재도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부모 교육참여는 자녀의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모의 다양한 행동과 신념·태도를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Boonk, Gijsselaers, Ritzen, & Brand-Gruwel, 2018; Grolnick & Slowiaczek, 1994). 선행연구에서 학부모 교육참여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학부모 교육참여에 대해 Grolnick과 Slowiaczek(1994, p. 238)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헌신하는 것(the dedication of resources by the parent to the child)’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에서의 학습과 관련해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가 하는 활동(Hoover-Dempsey & Sandler, 1997)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교육참여를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참여하는 특정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개별적인 활동에 집중해 왔다. 즉, 각각의 교육참여 활동이 자녀의 학업 성취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변수용, 김경근, 2008; 최옥희, 김용미, 2008; Lee & Bowen, 2006; Ma, Shen, Krenn, Hu, & Yuan, 2016), 어떠한 요인들이 개별 교육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김은영, 이강이, 정정화, 2015; 류방란 등, 2015; 서현석, 최인숙, 2012; 홍송이, 2018; Kim & Chin, 2016; Lee & Bowen,

2006)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적인 교육참여 활동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 개인 단위에서 학부모 교육참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개념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교육참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라는 방식을 통해 학부모 교육참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단위에서 개별 교육참여 활동은 일관되게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보다 개별 교육참여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개인 단위에서 개별 교육참여 활동이 결합되는 방식에 기초해 전체 모집단에서 결합된 형태가 유사한 하위집단을 유형화함으로써 다차원적 개념의 학부모 교육참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Epstein 등(2002)의 학부모 교육참여 모델에 기초해 학부모 교육참여를 개념화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부모 교육참여가 주로 ‘학교참여’¹⁾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학생인 자녀의 발달과 학업성취, 학교적응을 위해 학부모 교육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학부모 교

육참여를 학교참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pstein 등(2002)의 모델에서는 교육자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6가지 중요한 차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학부모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첫째, 자녀의 발달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의 학습을 위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양육행동(parenting), 둘째, 가정에서 학생인 자녀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숙제나 다른 교과 관련 활동을 돕는 가정에서의 학습(learning at home), 셋째, 자녀와 관련해 학교와 가정 간에 이루어지는 양방향의 의사소통(communicating), 넷째, 학교의 목표나 자녀의 학습,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 다섯째,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여섯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알고 활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상호작용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collaborating with commun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지역사회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물리적 자원이나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개인, 집단, 조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학교를 발전시키고, 가족을 강화하며, 자녀의 적응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자원과 기회를

1) 학부모 학교참여는 ①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 ② 교육현장에서의 참여, ③ 교육주체로서의 참여를 의미한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16). 구체적인 학교참여 형태로는 학부모 총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 학교 수업공개 참여, 학교교육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학교교육 참여, 학부모교육 참여, 교육기부 활동 등이 있다.

제공하기 때문이다(Epstei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Epstein 등(2002)의 모델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① 양육행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모가 적절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가정에서의 양육, ② 가정에서의 학습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 학업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학습을 도와주는지를 측정하는 가정내 교육지원, ③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지표로 교사와의 비면대면 상담(빈도), ④ 자원봉사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교육 모니터링, 학습지도활동, 도우미 활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주관 및 지원과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⑤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활동 참여 경험, ⑥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녀교육과 관련해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지표로 하여 유형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Epstein 등(2002)은 학교와 교사가 각 학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지 않는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의 교육참여 양상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학년 또는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교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으나(김소영, 진미정, 2015; 김은영 등, 2015; 서현석, 최인숙, 2012),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의 학년이 변화함에 따라 학부모 교육참여 양상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이강이, 진미정, 이재림, 김영선(2018)의 연구는 자녀의 학년 변화가 학부모 교육참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 때,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부모 교육참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부모 교육참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각각의 개별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개인이 속한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이 자녀의 학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일 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모든 학교급과 학년에서 중요하지만,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학부모로서 처음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2) 일반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의사소통 지표로 교사와의 면대면 상담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면대면 상담을 유형화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면대면 상담의 경우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70% 이상의 어머니가 한 학기에 1회 면대면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이강이, 진미정 등, 2018). 이처럼 면대면 상담은 정례적 운영으로 인해 집단 내 다양성을 포착하는 유형화의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비면대면 상담은 비정례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참여의 하위차원 중 학교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살펴보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부모 교육 참여는 이후 학부모로서 어떻게 교육에 참여 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는 시간적 간격이 1년밖에 되지 않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본격적으로 공교육에 진입함으로써 부모에게는 학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는 시기인 동시에,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가장 요구되는 시기이다. 또한 첫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학부모가 된 경우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참여에 대한 동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 2학년 시기는 자녀와 학부모 모두 학교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시점인 동시에, 교과목 수나 교과과정, 수업시수 등이 1학년과 비슷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동기가 낮아지는 시기이다(이강이, 진미정 등, 2018). 또한 2학년이 되면 지난 1년간 학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어떠한 활동은 참여하지 않을지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1학년 시기와는 차별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비록 짧은 시간 간격이기는 하지만, 두 시점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학부모 교육참여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으며, 학부모로

서 교육참여의 주된 주체 역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서의 학부모 교육 참여 유형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도 살펴보고자 한다.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자녀 특성, 학부모 특성, 학교 특성 등이 있다. 세 요인 모두가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특성보다는 학부모 및 자녀 특성이 학부모 교육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된다(변수용, 김경근, 2008; Muller, 1993; Muller & Kerbow, 1993).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영향 요인을 크게 자녀 특성과 학부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특성으로는 자녀 성별, 자녀수가 학부모 교육참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 성별과 관련해 자녀가 딸일 때보다 아들일 때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변수용, 김경근, 2008; Stevenson & Baker, 1987; Sui-Chu & Willms, 1996). 학부모의 학교참여 동기를 질적연구를 통해 밝힌 이강이, 김영선과 이재림(2018)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아들일 때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아이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아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고자 학부모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습, 생활지도와 같은 가정에서의 교육참여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변수용, 김경근, 2008).

자녀수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각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참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esimone, 2001).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형제자매수가 학부모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참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가정 내에서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부모의 학교활동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변수용, 김경근, 2008).

학부모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근로시간, 및 가구소득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연령은 학부모 교육참여와 관련해 주목받아온 변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2011년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에서는 학부모가 30대 이하일 때 학교참여가 높았다고 보고했다(최상근, 김형주, 전선미, 2011).

학부모의 교육수준과 학부모 교육참여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부모 교육참여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는데,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류방란 등, 2015; 신혜숙, 민병철, 2017; 이현아, 진미정, 2012; 심미옥, 2003; 최인숙, 이강이, 2013; 홍송이, 2018; Kim & Chin, 2016; Lee & Bowen, 2006; Stevenson & Baker, 1987). 그러나 이와 달리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학부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서현석, 최인숙, 2012).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참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정에서의 교육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홍송이, 2018).

시간은 한정적 자원이며, 학부모 교육참여는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근로시간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부모 교육참여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대체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교육참여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소영, 진미정, 2015; 김은영 등, 2015; 류방란 등, 2015; 변수용, 김경근, 2008; 신혜숙, 민병철, 2017; 이현아, 진미정, 2012; 최인숙, 이강이, 2013). 취업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낮게 나타났다(이현아, 진미정, 2012). 그러나 이와 달리 고용지위를 미취업, 시간제, 전일제로 구분하여 학부모 교육참여 중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Kim & Chin, 2016)에서는 어머니의 고용지위가 학교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중요하지만, 취업한 경우 근로시간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교육참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소득은 학부모의 교육수준과 함께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서현석, 최인숙, 2012; 신혜숙, 민병철, 2017; 심미옥, 2003; 최인숙, 이강이, 2013; 홍송이, 2018; Kim & Chin, 2016; Lee & Bowen, 2006). 학부모 교육참여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가구소득과 학부모 교육참여는 정적관계가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류방관 등, 2015; 심미옥, 2003; 최인숙, 이강이, 2013; Kim & Chin, 2016). 그러나 학부모 교육참여 형태에 따라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 서현석, 최인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부모 상담 경험, 가정에서의 자녀학습지원과 같은 학부모 참여는 높았지만, 학부모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낮을 때보다 중간 정도일 때 참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자녀 요인 및 학부모 요인이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육참여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각각의 교육참여 활동과 영향 요인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육참여의 다차원성에 기초해 어머니들의 학부모 교육참여를 유형화했을 때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유형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는 어떠한 패턴으로 분류되는지 유형화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적용해 1학년, 2학년 시기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의 변화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 시점에서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밝혀내어 학부모의 높은 교육참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1학년 시기와 2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은 각각 몇 개로 구분되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 교육참여의 각 유형에서 초등학교 2학년의 각 유형으로 이동하는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1학년 시기와 2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 1학년, 2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는 한국 사회의 맥락을 고려한 학부모 교육참여 특징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목표모집단은 2017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 자녀를 둔 어머니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에 근거해 지역별로 할당표집하였다. 지금까지 2차년도에 걸쳐 3차례 조사를 실시했는데 1차년도(2017년)에는 ‘입학 전’인 2월에 1차 조사, ‘1학년’ 1학기를 마친 8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입학 전’ 실시한 1차 조사는 368명의 어머니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2차 조사에는 이 중 243명이 참여하였다. 표본이탈을 보완하기 위해 2차에는 165명의 추가 패널이 모집되었다. 2차년도(2018년)에는 ‘2학년’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학년, 2학년 모두

8 인간발달연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80$)

변수			1학년	2학년
			<i>n</i> (%)	<i>n</i> (%)
자녀 특성	자녀 성별	남자	189 (49.74)	
		여자	191 (50.26)	
	자녀수	1명	147 (38.68)	146 (38.42)
		2명	202 (53.16)	201 (52.89)
		3명	31 (8.16)	33 (8.68)
학부모 특성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 (.26)	
		고등학교 졸업	57 (15.00)	
		2-3년제 대학교 졸업	104 (27.37)	
		4년제 대학교 졸업	215 (56.58)	
		대학원 졸업	3 (.79)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48 (12.63)	
		2-3년제 대학교 졸업	74 (19.47)	
		4년제 대학교 졸업	247 (65.00)	
		대학원 졸업	11 (2.89)	
	어머니 근로시간	0시간	208 (54.74)	222 (58.42)
		1-39시간	60 (15.79)	45 (11.84)
		40시간 이상	112 (29.47)	113 (29.74)
	월평균 가구소득	100-199만원	4 (1.05)	5 (1.32)
		200-299만원	31 (8.16)	31 (8.16)
		300-399만원	118 (31.05)	120 (31.58)
		400-499만원	101 (26.58)	96 (25.26)
		500-599만원	65 (17.11)	65 (17.11)
		600-699만원	36 (9.47)	36 (9.47)
		700-799만원	14 (3.68)	17 (4.47)
		800만원 이상	11 (2.89)	10 (2.63)
			<i>M</i> (<i>SD</i>)	<i>M</i> (<i>SD</i>)
어머니 연령		38.86 (3.59)		
아버지 연령		40.53 (3.77)		
어머니 교육년수		14.85 (1.52)		
아버지 교육년수		15.16 (1.49)		
취업모 평균근로시간		36.27 (11.41)	37.92 (11.04)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3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입학 전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 성별은 남아가 49.74%, 여아가 50.26%였다. 자녀수는 1학년 때는 1명인 경우가 38.68%, 2명이 53.16%, 3명이 8.16%였으나, 2학년 때는 1명이 38.42%, 2명이 52.89%, 3명인 경우가 8.68%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자녀가 1학년인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 만 38.86세, 아버지는 평균 만 40.53세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56.58%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27.37% 순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65.00%,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19.47% 순이었다. 교육년수는 어머니의 경우 평균 14.85년, 아버지는 평균 15.16년이었다.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니가 1학년 때는 54.74%, 2학년 때는 58.42%로 두 시기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일하는 어머니는 1학년 시기 29.47%, 2학년 시기 29.74%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은 1학년 시기 평균 36.27시간, 2학년 시기 평균 37.92시간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 2학년 시기 모두 300-399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05%, 31.58%로 가장 높았다.

2. 측정도구

1)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화 지표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를 유형화하기 위해 Epstein 등(2002)의 여섯 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가정에서의 양육(parenting 차원), 가정내 교육지원(learning at home 차원), 교사와의 비면대면 상담(communicating 차원), 학교 자원봉사·교육기부 참여(volunteering 차원),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decision making 차원),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collaborating with community 차원)을 사용하였다.

가정에서의 양육. 가정에서의 양육은 정계숙, 최은실(2013)이 개발한 부모역량감 척도 중 양육역량에 대한 27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양육역량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측정하며, 자녀발달특징·육구 이해, 부모-자녀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방향 목표 설정,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생애진로 개발, 발달·학습지원 환경 제공이라는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우리 아이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과 요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양육(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수정해가면서 적절하게 양육한다’, ‘나는 양육(교육)시 생기는 아이와의 갈등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등이 있다. 27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1학년일 때 .890, 2학년일 때 .906로 양호하였다.

가정내 교육지원. 가정내 교육지원은 심미옥(2003)의 가정에서의 교육지원활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활동은 부모가 가정에서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자녀의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업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문화적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직접 학습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이 척도는 학습분위기 조성, 학습지도, 생활통제, 시간통제, 정보수집, 문화적 경험이라는 6개 하위영역의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자녀의 공부방을 따로 마련해준다’, ‘자녀가 공부할 때 함께 앉아서 직접 가르친다’, ‘캠핑, 공연, 여행, 책방, 도서관 등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등이 있다. 23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1학년 .873, 2학년 .81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전체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면대면 상담. 비면대면 상담은 ‘귀하는 이번 학기 동안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선생님과 비면대면 상담(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서신)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를 묻는 5점 척도(1 = 없음, 2 = 한 학기에 2-3번, 3 = 한 달에 2-3번, 4 = 일주일에 2-3번, 5 = 거의 매일)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자원봉사·교육기부. 자원봉사·교육기부는 응답시점 직전 학기 동안 교육 모니터링(교육 활동, 급식 모니터링 등), 학습지도활동(일일교사, 독서지도 등), 도우미 활동(급식 도우미,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주관 및 지원(현장체험학습 보조 교사 등)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참여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없

음’ 1점, ‘한 학기에 1~2회’ 2점, ‘한 학기에 3~4회’ 3점, ‘한 달에 1~2회’ 4점, ‘일주일에 1회 이상’ 5점으로 측정되었다.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활동을 묻는 각각의 문항의 측정방식으로 인해 총 횟수를 합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장 자주 참여하는 활동의 빈도, 즉 네 가지 영역의 값 중 최댓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은 응답시점 직전 학기 동안의 참여 경험을 묻는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참여’는 1로, ‘미참여’는 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은 ‘귀하는 자녀교육에 대해서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이 주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를 묻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없음’ 1점, ‘1~3명’ 2점, ‘4~6명’ 3점, ‘7~10명’ 4점, ‘11명 이상’ 5점으로 측정되었다.

2) 학부모 교육참여 영향 요인

자녀 특성. 자녀 특성으로 자녀의 성별과 자녀수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 1, ‘여자’ 0으로 이분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녀수는 1학년 때와 2학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시점의 자녀수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부모 특성. 학부모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1학년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에 대해 1점(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6점(대학원 졸업)까지 6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교육년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1학년, 2학년일 때의 값이 각 시점의 유형을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 세 금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점(100만원 미만), 2점(100-199만원)에서 9점(800만원 이상)까지 9점으로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첫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각각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통해 살펴보고,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통해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 양상을 알아보면, 각 시점의 어머니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은 잠재계층분석을 종단 자료 분석으로 확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시점 이상에서 잠재계층을 분석하여 잠재계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0). 잠재전이분석에서는 시점에 따라 개인이 속하는 잠재계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t 시점에서 특정 잠재

계층에 속한 개인이 $t+1$ 시점에는 다른 잠재계층으로 전이될 확률을 추정해 보여준다(Lanza, Patrick, & Maggs, 2010).

이 연구에서는 Mplus 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단계 추정방법(three-step approach)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각 시점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1학년, 2학년 때의 어머니 교육참여 유형의 수를 결정한다. 2단계로 계산된 사후확률에 따라 개인에게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계층을 할당한다. 할당된 잠재계층은 명목변수이다. 그러나 개인이 할당된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에 따른 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3단계는 2단계에서 발생한 분류오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할당된 명목변수를 잠재계층에 대한 측정변수로 사용해 두 시점에서의 잠재계층분석을 결합하여 최종모형을 분석하게 된다(양준영, 김지원, 김수영, 홍세희, 2019). 각 시점의 유형 설명요인을 포함하는 잠재전이분석의 경우, 3단계의 최종모형에 설명요인을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각 시점의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와 같은 통계적 기준과 더불어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정보지수인 AIC, BIC, ABIC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하며, 분류의 질을 보여주는 Entropy값은 1에 가까울수록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비교검증 방법인 LMR LRT, BLRT는 잠재계층의 수가 k

개인 모형과 k -1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검증하는데, 결과의 p 값이 유의하면 k 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유형화를 위해 사용한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화 지표들의 기술통계는 표 2, 유형화 지표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가 보고한 가정에서의 양육(응답점수범위: 1-5)은 1학년, 2학년일 때 각각 평균 3.94점, 3.88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편이었다.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가정에서의 양육 점수는 차이가 있어서(paired $t = 2.84, p < .01$), 1학년 때 가정에서의 양육 점수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가정내 교육지원은 1학년, 2학년 때의 평균이 각

각 3.53점, 3.47점으로 중간값보다 높았다. 1학년, 2학년 때 가정내 교육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aired $t = 2.52, p < .05$) 어머니는 1학년 때 가정에서 교육지원활동을 더 제공하고 있었다. 비면대면 상담과 관련해서는 1학년 때는 평균 1.84점, 2학년 때는 평균 1.70점으로 대체로 한 학기에 1~2회 정도의 비면대면 상담을 하고 있었다.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비면대면 상담 빈도에는 차이가 있어(paired $t = 3.15, p < .01$), 1학년 때에 비해 2학년 때 비면대면 상담을 하는 빈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자원봉사·교육기부의 참여 빈도는 1학년, 2학년 때의 평균값이 각각 1.76점, 1.77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즉, 어머니는 교육 모니터링, 학습지도활동, 도우미 활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주관 및 지원이라는 4가지 활동 중 가장 참여한 빈도가 높은 활동의 경우에도 한 학기에 1-2회에 못 미치게 참여하고 있었다.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

표 2. 1학년, 2학년 어머니 교육참여 전반적 수준 ($N = 380$)

	1학년	2학년	paired t
	$M (SE)$	$M (SE)$	
가정에서의 양육 (1-5)	3.94 (.02)	3.88 (.02)	2.84**
가정내 교육지원 (1-5)	3.53 (.02)	3.47 (.02)	2.52*
비면대면 상담 (1-5)	1.84 (.04)	1.70 (.04)	3.15**
자원봉사·교육기부 (1-5)	1.76 (.04)	1.77 (.04)	-.15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 (1-5)	2.56 (.04)	2.37 (.03)	4.64***
	$n (%)$	$n (%)$	χ^2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			
미참여 (0)	228 (60.0)	270 (71.1)	30.71***
참여 (1)	152 (40.0)	110 (28.9)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교육참여 유형화 지표들의 상관분석 결과 ($N = 3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4 ^{***}	1										
3	.10	.12 [*]	1									
4	.17 ^{***}	.10 [*]	.01	1								
5	.18 ^{***}	.18 ^{***}	.09	.26 ^{***}	1							
6	.12 [*]	.24 ^{***}	.20 ^{***}	.05	.12 [*]	1						
7	.42 ^{***}	.09	-.02	.09	.12 [*]	.00	1					
8	.18 ^{***}	.32 ^{***}	.03	.04	.09	.13 ^{**}	.40 ^{***}	1				
9	.09	.02	.19 ^{***}	-.07	.07	.15 ^{**}	.06	-.04	1			
10	.16 ^{**}	.11 [*]	.03	.23 ^{***}	.21 ^{***}	.05	.12 [*]	.02	.10	1		
11	.18 ^{***}	.08	.12 [*]	.11 [*]	.28 ^{***}	.08	.27 ^{***}	.19 ^{***}	.23 ^{***}	.32 ^{***}	1	
12	.11 [*]	.16 ^{**}	.02	.06	.08	.29 ^{***}	.05	.15 ^{**}	-.01	.15 ^{**}	.00	1

(1학년) 1. 가정에서의 양육 2. 가정내 교육지원 3. 비면대면 상담 4. 자원봉사·교육기부 5.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 6.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

(2학년) 7. 가정에서의 양육 8. 가정내 교육지원 9. 비면대면 상담 10. 자원봉사·교육기부 11.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 12.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

* $p < .05$. ** $p < .01$. *** $p < .001$.

동은 1학년 때는 40.0%, 2학년 때는 28.9%가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학년, 2학년 때의 활동 경험은 차이가 있어($\chi^2 = 30.71$, $p < .001$), 1학년 때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과 관련해서는 1학년 때 평균 2.56점, 2학년 때 평균 2.37점으로, 자녀 교육과 관련해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의 수가 주위에 1~3명(2점)보다는 약간 많은 편이었다. 1학년과 2학년 때의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paired $t = 4.64$, $p < .001$) 1학년 때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더 컸다.

2. 시점별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화

시점별 학부모 교육참여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점별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1학년과 2학년의 각 시점별로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1학년 시기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보면, 잠재계층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AIC, BIC, ABIC는 감소하였다.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일 때 Entropy 값이 더 높았고, LMR, LRT, BLRT 값 또한 유의하였다. 이에 1학년 시기의 잠재계층은 3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표 4. 잠재계층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잠재계층 수	df	AIC	BIC	ABIC	Entropy	LMR LRT	BLRT
1학년							
2	18	3601.886	3672.809	3615.699	.639	.001	< .000
3	25	3547.540	3646.044	3566.724	.725	.026	< .000
4				추정 실패			
2학년							
2	18	3514.572	3585.495	3528.385	.941	.005	< .000
3				추정 실패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BIC =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LMR LRT =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였다. 2학년 시기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2개일 때부터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갔으나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일 때 추정에 실패했다. 잠재계층의 수가 2개일 때, Entropy 값은 .9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LMR LRT, BLRT 값 또한 유의하여 2학년 시기의 잠재계층의 수는 2개로 결정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1학년, 2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별 교육참여 특성은 표 5, 그림 1, 그림 2와 같다. 1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유형 1은 전체의 27.3%의 어머니들이 속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참여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가정에서의 양육, 가정내

표 5. 교육참여 유형별 교육참여 특성

유형화 지표	1학년			2학년	
	유형 1 (27.3%)	유형 2 (60.6%)	유형 3 (12.1%)	유형 1 (92.7%)	유형 2 (7.3%)
	M(SE)	M(SE)	M(SE)	M(SE)	M(SE)
가정에서의 양육 (1-5)	3.67 (.07)	4.04 (.03)	4.03 (.05)	3.86 (.02)	4.15 (.08)
가정내 교육지원 (1-5)	3.17 (.08)	3.68 (.04)	3.61 (.09)	3.47 (.02)	3.56 (.10)
비면대면 상담 (1-5)	1.59 (.08)	1.94 (.06)	1.96 (.12)	1.69 (.04)	1.82 (.12)
자원봉사·교육기부 (1-5)	1.39 (.10)	1.61 (.06)	3.40 (.16)	1.62 (.04)	3.69 (.24)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 (1-5)	2.27 (.07)	2.69 (.07)	2.60 (.11)	2.33 (.03)	2.81 (.25)
	probability (SE)	probability (SE)	probability (SE)	probability (SE)	probability (SE)
운영위원회·학부모회 (1=참여)	.13 (.06)	.49 (.05)	.56 (.09)	.26 (.03)	.7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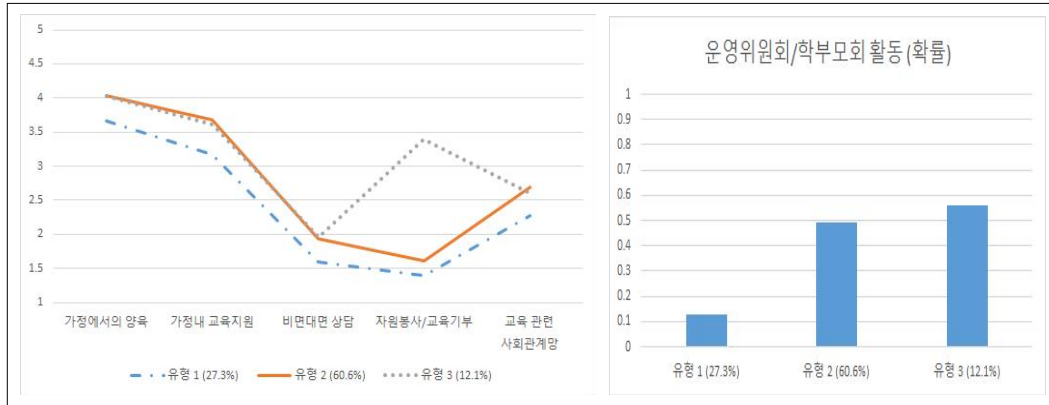


그림 1. 1학년 시기 교육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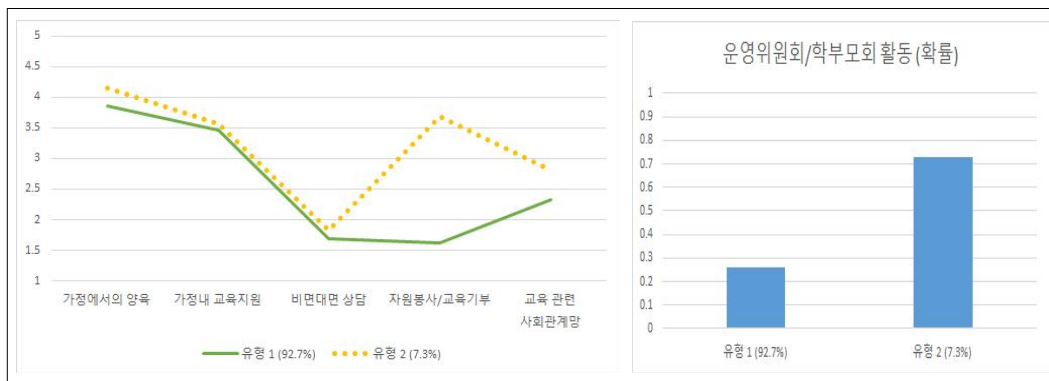


그림 2. 2학년 시기 교육참여 유형

교육지원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중간값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학교와 관련된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형 1을 ‘**학교참여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전체 어머니의 60.6%가 속해있는 집단이다. 유형 1과 비교하면 자원봉사·교육기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참여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교육참여 수준이 1, 2학년에서 도출된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유형 2는 ‘**중간 이상 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어머니 중

12.1%가 속해있는 집단으로, 유형 2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자원봉사·교육기부도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유형 3을 ‘**자원봉사 적극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학년 시기의 유형 1은 전체 어머니의 대다수인 92.7%가 속해있었다. 이 집단은 유형 2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참여 수준이 낮았다. 1학년 시기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과 비교했을 때 ‘학교참여 소극형’보다는 유형화 지표의 값이 다소 높지만, ‘중간 이상 참여형’보다는 전반적으로 값이 낮아 ‘**중간 이하 참**

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전체의 7.3%의 어머니가 속해있는 집단으로 유형 1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육참여 수준이 높았다. 특히 자원봉사·교육기부의 수준이 높고,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자원봉사·교육기부와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은 학부모의 대표적인 학교참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집단을 '학교참여 적극형'으로 명명하였다.

3.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 양상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이 2학년 시기의 유형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참여 소극형'은 100% 모두 2학년 때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되었으며, 1학년 시기 '중간 이상 참여형'의 89.1%, '자원봉사 적극형'의 92.2%가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되었다.

표 6.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 양상 (단위: %)

		2학년	
		중간 이하 참여형 (92.7%)	학교참여 적극형 (7.3%)
1학년	학교참여 소극형 (27.3%)	100	0
	중간 이상 참여형 (60.6%)	89.1	10.9
	자원봉사 적극형 (12.1%)	92.2	7.8

표 7. 교육참여 유형 영향요인

		1학년 시기		2학년 시기
		학교참여 소극형 (자원봉사 적극형)	중간 이상 참여형	학교참여 적극형 (중간 이하 참여형)
(준거집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영향요인				
자녀 특성	성별	-.41 (.43)	-.17 (.41)	-.64 (.55)
	자녀수	1.05 (.48)*	.96 (.45)*	-.43 (.44)
학부모 특성	어머니 연령	.07 (.06)	.02 (.06)	.08 (.06)
	어머니 교육년수	.04 (.13)	.40 (.14)**	-.23 (.21)
	어머니 근로시간	.03 (.02)*	.04 (.01)**	-.06 (.03)*
	월평균 가구소득	-.12 (.18)	.00 (.17)	.36 (.18)*

* $p < .05$, ** $p < .01$.

4.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 영향요인

1학년과 2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 구분에 자녀 특성과 부모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7과 같다. 각 계수는 1학년 시기는 ‘자원봉사 적극형’을 준거집단으로, 2학년 시기는 ‘중간 이하 참여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1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 구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수가 많고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 때 ‘자원봉사 적극형’에 비해 ‘학교참여 소극형’이나 ‘중간 이상 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길 때 ‘자원봉사 적극형’보다 ‘중간 이상 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 영향요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간 이하 참여형’에 비해 ‘학교참여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교육참여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특성과 부모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pstein 등(2002)의 학부모 교육참여 모델을 토대로 설정한 유형화 지표는 가정에서의 양육, 가정내 교육지원, 교사와의 비면대면 상담,

학교 자원봉사·교육기부 참여,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이었다. 분석결과 및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에 대한 잠재계층 분석 결과, 3개의 유형이 구분된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교육참여 수준이 낮은 ‘학교참여 소극형’(27.3%), 자원봉사·교육기부는 학교참여 소극형과 유사한 수준이나, 나머지 교육참여 수준은 학교참여 소극형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중간 이상 참여형’(60.6%), 교육참여 양상이 중간 이상 참여형과 유사하지만, 자원봉사·교육기부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원봉사 적극형’(12.1%)으로 분류된다. 1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는 전반적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가정에서의 양육과 가정내 교육지원은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의 87.9%를 차지하는 ‘학교참여 소극형’과 ‘중간 이상 참여형’은 교육참여 유형화 지표인 개별 교육참여 활동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가정에서의 양육과 가정내 교육지원 수준은 높고, 비면대면 상담,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 참여 빈도는 낮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패턴은 유사하다. ‘자원봉사 적극형’은 과반수의 어머니가 속하는 ‘중간 이상 참여형’과 유사하지만,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 참여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들과 차별적이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2개의 잠재계층이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속하며, 자원봉사·교육기부,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 수준이 낮은 ‘중간 이하 참여형’(92.7%)과 전반적으로 교육참여 수준이 높으며, 특히 자원

봉사·교육기부 참여 빈도가 높고,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학교참여 적극형’(7.3%)이다. 이를 통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2학년 시기보다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1학년 시기와는 달리, 2학년 시기에는 자원봉사 또는 교육지원 활동,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부의 어머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분류된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참여 소극형’은 모두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되며, 1학년 시기 ‘중간 이상 참여형’의 89.1%, ‘자원봉사 적극형’의 92.2%가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된다. 즉, 자녀가 2학년이 되면 자원봉사·교육기부, 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부의 어머니를 제외한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2학년 시기 ‘중간 이하 참여형’에 속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1학년 시기에 교육참여가 높았던, ‘중간 이상 참여형’, ‘자원봉사 적극형’에 속한 어머니들도 대체로 2학년 시기에는 1학년보다 교육참여 수준이 낮은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분류된 결과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교육참여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Epstein et al., 2002)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현장과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우

리나라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은영, 2015).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의 활동이 평일 낮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부 학부모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강이, 진미정 등, 2018; 이경아, 2010).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해서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부모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송복순, 2014; 이강이, 김영선, 이재림, 2018), 이로 인해 1학년 시기에는 어머니들이 무리해서라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학교적응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2학년 시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해서까지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2학년 시기에는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학년 시기 ‘학교참여 소극형’에 속한 어머니 중 2학년 시기에 ‘학교참여 적극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결과는 학부모 교육참여가 낮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 구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근로시간이다. 자녀가 적고,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을 때 다른 유형보다 ‘자원봉사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짧을

때 ‘중간 이상 참여형’보다 ‘자원봉사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 분류에는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고, 가구소득이 많을 때, ‘중간 이하 참여형’보다 ‘학교참여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1학년과 2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 구분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어머니의 근로시간이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을 때 1학년 시기에는 ‘자원봉사 적극형’, 2학년 시기에는 ‘학교참여 적극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즉, 어머니의 짧은 근로시간은 높은 교육참여와 관련되며,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나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학교 기반의 참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을 경제활동 하지 않음, 1-39시간, 40시간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1-39시간 일하는 것은 교육참여 유형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참여가 낮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교육참여가 높게 나타나며(김소영, 진미정, 2015; 김은영 등, 2015; 류방란 등, 2015; 변수용, 김경근, 2008; 이현아, 진미정, 2012; 최인숙, 이강이, 2013), 취업한 부모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수록 학부모의 학교참여 경험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이현아, 진미정,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원봉사, 교육기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학교참여 활동이 대부분 평일 낮시간

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긴 경우 학부모가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이는 방안으로 근로시간에 주목해 유연근로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 학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기는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다.

1학년 시기에는 자녀수와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는데, 자녀수가 많을 때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참여를 보이는 ‘자원봉사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수가 많아지면 부모의 관심이 자녀 각각에게로 분산되어 한 자녀에게 집중된 교육참여 수준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Desimone, 2001)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중간 이상 참여형’보다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 참여 빈도가 더 높은 ‘자원봉사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선행연구(최인숙, 이강이, 2013)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심리적 위축이나 편견, 차별 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자녀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다(현주, 2003).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학업과 관련한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통해 보완하고, 이를 통해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활동은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교육 참여 활동이기 때문에(최인숙, 이강이, 2013), 다른 교육참여보다 자원봉사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학년 시기에는 근로시간 외에 월평균 가구소득이 유형간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 때 교육참여가 높은, ‘학교참여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구소득이 학부모 교육참여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최인숙, 이강이, 2013; 홍송이, 2018; Lee & Bowen, 2006)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교육참여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1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70% 이상의 어머니가 ‘중간 이상 참여형’, ‘자원봉사 적극형’에 속하는 데 반해, 2학년 시기에는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전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참여의 중요성과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

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중에서도 특히 학교와 관련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1학년 시기에 교육참여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가 느낀 불편,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들의 근로시간이 길 때 대체로 교육참여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공식 행사 및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까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학부모 학교 참여휴가제가 논의되어 왔으나 도입되지는 않고 있다(김은영, 진미정,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참여휴가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때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의 학부모 교육참여의 종단적 전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부모 교육참여 양상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1학년과 2학년 시기 각각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나, 1학년의

특정 유형에서 2학년의 특정 유형으로 이동하는 배경이 되는 요인들은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고, 1학년 시기 ‘학교참여 소극형’의 경우 100%가 2학년 시기 ‘중간 이하 참여형’으로 이동하여서 전이의 영향 요인을 밝히기에는 통계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참여 유형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형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비면대면 상담이 면대면 상담에 비해 학부모 참여의 다양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의사소통 차원으로 교사와의 비면대면 상담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면대면 상담과 비면대면 상담을 모두 사용할 경우 잠재계층분석에서 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부터 추정되지 않거나, entropy 값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는 등의 방법론적 이슈도 있었다. 그러나 면대면 상담이 학부모의 교육참여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면대면 상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자원봉사·교육기부 참여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활동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자주 참여한 활동의 빈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은 종류에 따라 참여하는 어머니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최인숙, 이강이, 2013) 후속연구에서는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의 종류를 구분하여 유형화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2차자료를 분석하여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나 학교적응과 같은 자녀 특성, 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동기와 같은 학부모 특성, 초등학교의 유형 및 규모,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교사 및 학교장의 태도 등과 같은 학교 특성이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을 구분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참여를 살펴보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의 학부모 교육참여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 육아참여가 활발해지고 아버지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등 ‘아버지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교육참여’는 어머니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편이다. 아버지 육아참여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 교육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부모 교육참여가 개인 단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형화라는 방식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시기 교육참여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인 변화를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학부모의 적극적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16). **2016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39-154.
- 김소영, 진미정 (2015). 초·중·고 학교급별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27(2), 27-60.
- 김은영 (2015, 12, 29).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교육 방향**. 서울교육웹진. http://webzine.serii.re.kr/view.jsp?cate_level=2&pageNum=2&newsCode=CNT20151229115028943에서 2019년 12월 3일 인출
- 김은영, 이강이, 정정화 (2015). 초·중·고 학부모의 학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161-182.
- 김은영, 진미정 (2016). **학부모 학교참여휴(공)가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방안 연구**(이슈페이퍼 2016-1).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류방관, 김경애, 임후남, 이성희, 양희준, 황지원 (2015).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및 정책 방안**연구보고 RR 2015-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2), 39-66.
- 서현석, 최인숙 (2012). 학부모참여와 학교만족도의 관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243-263.
- 송복순 (2014).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 **초등교육학연구**, 21(2), 39-55.
- 신혜숙, 민병철 (2017). 가정배경, 부모 교육관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경기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3(6), 535-556.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양준영, 김지원, 김수영, 홍세희 (2019).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잠재계층 분류 및 전이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6(2), 101-130.
- 이강이, 김영선, 이재림 (2018). **초등학교 전이기 학부모의 학교참여 경험 연구**(학부모정책-수시-2018-02).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강이, 진미정, 이재림, 김영선 (2018). **초등학교 초기적응기 학부모의 교육참여 연구**(학부모정책-기본-2018-01).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2). **학교급별, 지역별, 학부모 특성별 학부모 학교참여 실태조사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방안 연구**(학부모정책-기본-2012-02)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

- 모정책연구센터.
- 이경아 (2010).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 토론회(대구광역시 교육청) 자료집, 3-27.
- 이현아, 진미정 (2012). 취업 부모의 학교참여 경험 및 학교참여휴가제에 대한 요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6), 119-130.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진미정, 이강이, 이현아, 서현석, 최인숙 (2014).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교육. 과 주: 교문사.
- 최상근, 김형주, 전선미 (2011). 2011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 조사 연구 (CR2011-5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옥희, 김용미 (2008). 부모 및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 79-109.
- 최인숙, 이강이 (2013). 학부모 교육기부 예측요인 탐색: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309-328.
- 현주 (2003). 학부모 교육관 및 사회풍토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242-261.
- 홍송이 (2018). 학부모의 자녀교육참여 영향변인 탐색. *학부모연구*, 5(3), 1-27.
- Boonk, L., Gijssels, H. J. M., Ritzen, H., & Brand-Gruwel, S. (2018).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indica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 Review*, 24, 10-30.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Wiley.
- Desimone, L. (2001). Linking parent involvement with student achievement: Do race and income matter?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3(1), 11-30.
- Epstein, J. L. (1987). Parent involvement: What research says to administrator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19(2), 119-136.
- Epstein, J. L., Sanders, M. G., Simon, B. S., Salinas, K. C., Jansorn, N. R., & Van Voorhis, F. L. (2002).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Your handbook for action* (2nd ed.). Thousand Oaks, CA: Corwin.
-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 237-252.
- Hoover-Dempsey, K. V., & Sandler, H. M. (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1), 3-42.
- Kim, S., & Chin, M. (2016).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ssociated with how parents communicate with school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9(5), 464-477.
- Lanza, S. T., Patrick, M. E., & Maggs, J. L.

- (2010). Latent transition analysis: Benefits of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odeling transitions in substance use. *Journal of Drug Issues*, 40(1), 93-120.
- Lee, J. S., & Bowen, N. K. (2006). Parent involvement, cultural capital, and the achievement gap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3(2), 193-218.
- *Ma, X., Shen, J., Krenn, H. Y., Hu, S., & Yuan, J. (2016).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outcomes and parental involvement du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arly elementary edu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4), 771-801.
- Muller, C. (1993). Parent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nalysis of family resources available to the child. In B. Schneider, & J. S. Coleman (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pp. 77-114). Boulder, CO: Westview.
- Muller, C., & Kerbow, D. (1993). Parent involvement in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In B. Schneider, & J. S. Coleman (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pp. 13-42). Boulder, CO: Westview.
- Stevenson, D. L., & Baker, D. P. (1987). The family-school relation and the child'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5), 1348-1357.
- Sui-Chu, E. H., & Willms, J. D.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 126-141.

1 차원고접수 : 2019. 10. 09.
수정원고접수 : 2019. 12. 06.
최종게재결정 : 2019. 12. 17.

Typology and Changes of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in Korea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Elementary School: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Kwon, Soyoung

Lee, Jaerim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dimensions of the parental involvement model by Epstein et al. (2002), we examined the patterns of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during their children's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using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Data came from 380 mothers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first- and second-grade waves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For the first grade,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was grouped into three types: (a) minimum school involvement (27.3%), (b) relatively high involvement (60.6%), and (c) active volunteer involvement (12.1%). For the second grade, mother's involvement was classified into two types: (a) relatively low involvement (92.7%) and (b) active school involvement (7.3%). Regardless of type during the first year, the mothers were likely to be categorized into the "relatively low involvement" type during the second year. The factor of maternal work hours was significant in that it predicted the groups. Our results suggest that while mothers are involved in education in more diverse forms when their children are in the first grade, the majority of mothers make a transition to the "relatively low involvement" type in the second grade as the child adjusts to school. This study also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ublic policies that promote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Keywords: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Dimensions of Parental Involvement,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 Second Grade, Latent Transition Analysis